

성삼 한인 성당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년 5월 15일



복음 나누기

부활 제5주일 (5월 15일)
새 계명 -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1-33 ~ 34-35)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4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 주님, 저희 가운데 오시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13장 31절부터 33 ~ 절까지,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31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32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33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34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요한 13,31)

나는 무엇으로, 그리고 어떤 삶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합니까?

"그리고 보고 믿었다." (요한 20,8)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생각과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며 그 모습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복음 나누기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예수님께서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서 사랑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아하는 것을 두고 사랑하며 산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것' 과 '좋아하는 것' 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가 가진 장점 때문에 그를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착하거나, 성실하거나, 예의가 바르거나, 잘 생기거나, 능력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은 그 장점들이 사라지고,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는 순간 줄어들고 사라지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사랑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덧붙여지는 일입니다. 못된 면도 보이고, 불성실하고, 예의 없고, 생긴 것도 별로고,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지난 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14번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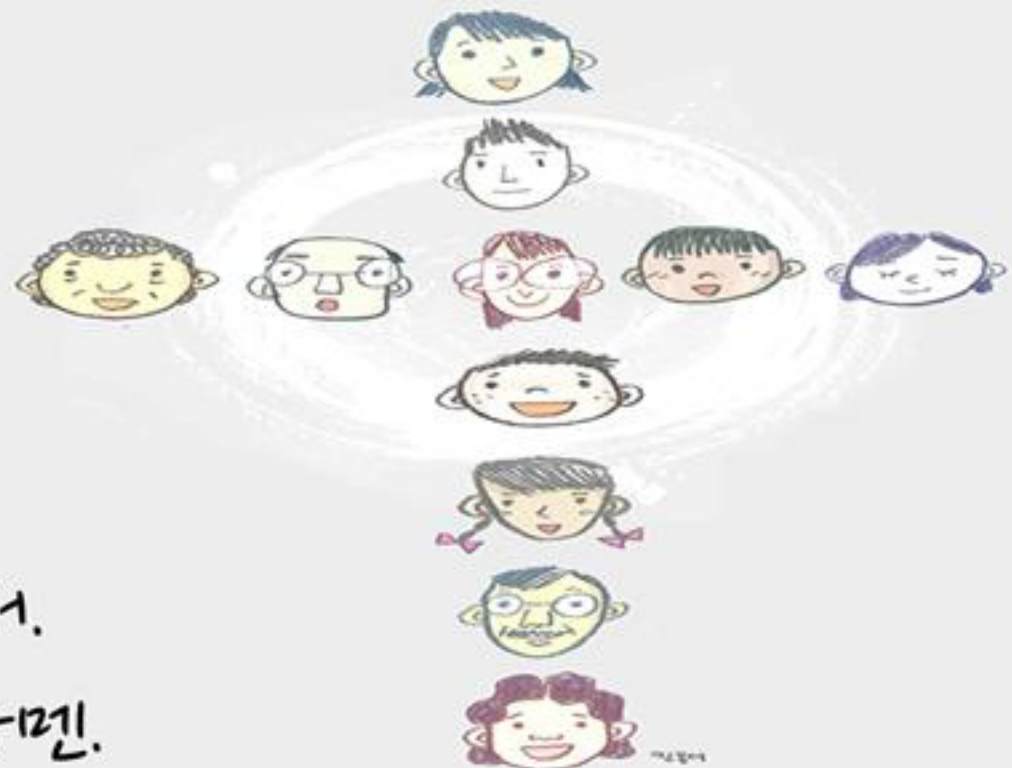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시길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리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선교하는 소공동체 - 왜 선교해야 하는가?

소공동체와 선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선교는 일부 열심한 사람의 몫이라고 여겨 선교에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은 본당 전체 신자 중에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선교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요한4,16). 선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백히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는 성부의 사랑과 자비에서 분출한 하느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의해 성자와 성령의 파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선교교령 2,3,4항).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며 최초이자 최대의 복음 선교자시다. 예수님은 일생동안 복음을 선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 교회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마르 1,1; 로마1,1-3; 현대의 복음선교 7,8항).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고 말씀하셨다(루가 4,43; 마르 2,38)

<다음 호에 계속...>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